

농가 소득 '빈부격차' 12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발표 소득 상위 20% 1억596만 vs 하위 20% 884만...가처분소득 29배 1분위 고령 농가 비중 85%...저소득 농가 맞춤형 지원 대책 확충해야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뿐 아니라 농가 계층 간 소득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2018~2022년 농가경제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간 농가 소득 상위 20% 농가(5분위)와 하위 20%(1분위) 농가 간 소득 격차가 12배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간 상위 20% 농가 평균 소득은 1억 596만원, 하위 20% 농가 평균 소득은 884만원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자체 파악한 '농가소득 불평등도'가 0.41(2020년)에서 0.42(2022년)로 확대됐고 '농업소득 불평등도'도 같은 기간 0.76에서 0.79로 확대된 점 등을 들어 농가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

경상소득을 모두 합한 것으로, 저소득 농가일수록 정부 보조금 등 이전소득 비중이 높았고 고소득 농가는 농업 소득 비중이 높을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농업소득은 지난 5년(2018~2022년 기준) 329만원 적자를 냈고 이전소득이 866만원으로 전체 농가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농외소득은 209만원, 비경상소득은 139만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5분위는 농외소득이 4873만원으로 전체 농가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업소득(3775만원), 이전소득(1551만원), 비경상소득(397만원)이 뒤를 이었다.

개인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의 경우 1분위와 5분위의 격차가 29배 이상 났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농가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3431만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했고 5분위 평균 가처분소

득은 8730만원에 달했지만 1분위는 298만원에 불과했다.

1분위 농가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꼽히는데, 고령 농가에서는 농업소득 외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이 없어 고소득 농가와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것이 KREI의 설명이다.

연령별 농가 분포를 보면 전체 농가 중 70세 이상 고령층이 49.7%, 60대는 35.2%로 고령 농가 비중이 84.9%에 달한다. 특히 저소득 농가일수록 고령농가 비율이 높았는데, 1분위와 2분위(하위 20~40%)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농가 비중이 각각 13.3%, 1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5분위 고소득 농가의 경우 60대 비중이 8.9%로 가장 높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5.8%)도 많았다. 이에 따라 일반농가 비중은 0.9%에 불과한 반면 부업농가 비중이 9.6%로 가장 높았다.

KREI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저소득 농가와 고소득 농가 간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영세 고령농가 등 저소득 농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산물품질관리사 김대성 기자의

'농사만사'

농사는 정말 하늘이 알아서 하는 것일까?

작황이 중요하지 않은 세상...지속 가능한 농업 여건 마련이 우선

농사를 짓다 보면 작황이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 마련이다.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 농사를 망칠 수 있고, 병해충이 극성을 부려 제대로 된 결실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힐 수도 있어서다. 결국 '농사는 하늘이 알아서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첨단기술 시대에는 이런 말이 통용되지 않는듯하다. 자연재해를 극복하는 농사법이 이미 충분히 개발돼 활용되고 있고, 우리 주식인 쌀처럼 남아돌아 가격이 폭락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규칙이 깨진 작물이 여럿 생겨나 작물의 잘되고 못된 정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지 이미 오래다.

이때 요사이 일련의 사례를 보면 농사의 원리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구나 하는 색감이 들 때가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이상 기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폭염과 강우 등으로 농작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교역이 확대되면서 병해충 문제를 전 세계가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발생한 버뮤다 사태만 봐도 그렇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고온 현상이 지속하면서 전국적으로 버뮤다가 확산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난데없는 집중호우까지 덮치면서 풍작을 위협할 번개가 발생한 것인데, 농민들은 최근 쌀값 폭락에다 버뮤다까지 겹쳐 생계가 위태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버뮤다는 벼를 수주식물로 하는 해충으로, 6~7월 중국에서 유입돼 벼 포기 아래에 서식하다 벼 출수 이후(8~9월) 벼대의 즙액을 먹으며 살아간다. 이 때문에 벼대가 노랗게 타들어 가다 쓰러지는데, 심하면 벼가 고사한다. 또 멸구의 배설물 때문에 그늘음병도 생겨 누렇게 변색한다.

사실 우리 농경지에는 풍작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병과 충(벌레), 특히 해충이 천지다. 앞서 말한 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충이 발생해 농작물 수확량과 품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눈에 는 버뮤다, 흰등멸구 등 멸구류와 이화명나방, 흑명나방 등의 나방류, 먹노린재와 버물바구미

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밭은 산이나 잡초가 무성한 초지와 인접하기 때문에 논과는 다른 해충이 득실거린다. 월동하는 보리, 밀 등은 추위로 인해 충해가 거의 없는 반면, 옥수와 수수, 콩 등이 자라는 여름은 해충의 최성기로 이 시기에는 벼과에 속하는 식물은 모두 먹어 치우는 멸강나방, 조명나방 등과 노린재류가 가장 무서운 적이다. 콩밭에는 노린재류, 옥수수밭에는 나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여기에 채소가 자라는 하우스나 과수가 자라는 과수원에도 다양한 해충이 발생하고 있다. 농경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진딧물은 어린잎, 꽃봉오리 등 약한 부위에 마치 하이에 나처럼 달라붙어 즙을 빨아 먹는 곤충으로 엄청난 숫자 때문에 더 위협적이다.

시골이나 노지를 가리지 않고 작물 종류에 상관없이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는 파밤나방, 담배 거세미나방, 도둑나방 등 나방류 애벌레들은 농업인들에게 고민을 주고 있다. 외국에서 유입된 총재벌레와 온실가루이는 시설 재배지에 크게 확산하고 있으며, 과수와 꽃에도 다양한 해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상황이 이 정도니 이 해충들을 다 어떡하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나라도 농약 개발 등 해충 방제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잡지 못하는 해충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충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써 왔는데, 최근에는 해충만 박멸하고 원 작물이나 다른 식물에는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친화적 농약이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농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천적을 이용하는 생물적 방제 기술이 조명받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겠다. 친환경 농업의 핵심 실행 수단으로 떠오르는 천적 활용 방제에 관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bigkim@kwangju.co.kr



"낙지야...무럭무럭 자라거라"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신안수협, 신안군과 함께 낙지 자원 증대 및 건강한 갯벌생태계 조성을 위해 낙지 종자 1만 5000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한 낙지는 지난 4월부터 성숙한 어미 낙지를 확보해 먹이 공급, 수온 조절 등 안정적 관리를 통해 알을 받아 부화시킨 것으로, 3~5cm 크기의 어린 낙지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김장용 가을배추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추진

김장·김치 소비량 감소에 작목 변경·휴경 농가 지원

전남도가 김장용 가을배추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10년 평균 전국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1만 4000여ha를 유지하는 반면, 1~2인 가구 증가로 인한 김장 문화 변화와 김치 소비량 감소 등으로 배추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만 해도 74.2kg 이던 1인당 김치 소비량

은 지난 2022년 36.5kg 수준으로 절반 가량 감소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들어 배추 작목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추 적정 면적 재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2년(2022~2023년) 간 배추를 키웠던 밭을 다른 작목으로 바뀌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남도는 유채·귀리 등 대체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감소분의 일부인 ha당 450만원을 지원한다. 보리·밀을 심은 농가의 경우 지역농협 등과 계약 재배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전남도는 지난 8월까지 접수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aT, 10월 4일까지 '제안 Week' 대국민 공모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오는 10월 4일까지 'aT 제안 Week'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 주제는 ▲수급안정 ▲수출진흥 ▲식품산업육성 ▲유통개선 ▲ESG경영 등 aT의 주요 사업과 경영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이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T는 우수 제안 아이디어를 선별해 제안자에게 포상할 계획이며 선별된 아이디어는 공사 서비스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신청 및 주요 사업 소개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aT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aT ESG 경영부를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